

특별기획



김제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환)은 지난 2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봉사단체, 복지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독거노인 생일 축하하기, 장수어르신 청춘나들이, 무의탁 독거노인 장례 동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캠프 진행

김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캠프'를 진행했다.

센터에 등록된 6~7세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지방이 소개, 나는야 행복한 요리사! 내 몸을 여행해요, 지방아 외쳐라 빙고!, 요플레·요랑이와 건강식단 차려주기 등 건강한 지방과 건강을 해치는 지방을 알아보는 다양한 게임, 체험, 미술활동 등 통합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중 한명은 "아이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하며, 지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된 것 같다. 아이도 나도 모두 만족하며, 내내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이와 꼭 닮은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이에 센터 직원들은 내내에도 알찬 프로그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센터장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도 인식시키고, 아이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렸을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18년도 신규 마을 발굴나서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마을 발굴에 나섰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여가·취업·문화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특화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으로는 읍·면 소재지 중심지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6억 이내)와 마을의 역할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10억 이내) 등이 있다.

시는 "5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과 마을(지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4개 읍면(신대인읍, 칠보면, 북면, 갑곡면)이, 창조적마을 만들기에는 4개 마을(태인분동, 산내 백필, 산내 신기, 산외 상두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들 지역 약 100여명의 추진위원과 주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 대비 대응방안과 향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동 설명회와 워크숍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평선축제, 교통 개선에 '호응'

김제시, 셔틀버스 증차·노선 확대·지하보도 신설 등 다각적 방안 마련

김제시(시장 이건설)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관광객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온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김제시는 우선 시내권에서 벽골제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관광객 개인차량 진입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기존 5개 노선 18대에서 6개 노선 21대로 확대 운영(30분 간격)할 계획이며 읍·면지역을 3개 권역(동부, 서부, 북부)으로 나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축제장 관람이 수월해 지고 관내 차량의 축제장 진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특히 축제기간 중 황금연휴인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2개 노선(임석사거리-아리랑문화마을 삼거리/국도 29호선-신덕마을)에 대해 셔틀버스 전용차선제를 운영하여 셔틀버스를 통한 행사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유료주차장(지평선 청룡, 백룡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관광객 개인차량 진입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기존 5개 노선 18대에서 6개 노선 21대로 확대 운영(30분 간격)할 계획이며 읍·면지역을 3개 권역(동부, 서부, 북부)으로 나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축제장 관람이 수월해 지고 관내 차량의 축제장 진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6월 21일 벽골제 신청문과 건너편 청·백룡 주차장간 횡단보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지하보도가 신설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어 축제장 인근 교통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그간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및 인프라 등 개선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것을 확신하며, 민고와 서 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2일부터 3일까지(2일간) 실시했다.

김제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기본교육 실시

331명 대상 2회에 걸쳐

김제시는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2일부터 3일까지(2일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계획은 주산지 GAP 안전성분사업 사업대상 지역 주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벼 재배 농가 331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 강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리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한석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1월부터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의 효율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GAP 인증으로의 전환유도를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현장컨설팅, 교육, 홍보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저농약 인증 농산물의 GAP 인증으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물 등의 요소를

/김제=곽노태 기자

'파랑새를 찾아서' 등 프로젝트 정신건강 증진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 1000만원 지원받아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빈곤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젝트 '파랑새를 찾아서'(이하 파랑새를 찾아서)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파랑새를 찾아서 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에서 주관한 베르세스테벤즈를 투게더 공모사업에 선정돼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를 재원으로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소외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25명 이내)과 중·고등학교(25명 이내)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긍정심리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회의 부모교육, 참여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연합캠프(1회)를 갖는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의 자아 탄력성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긍정적인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을 돕고 청소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연합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다. 보건소 관계자는 "빈곤소외계층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보다 더 강인하고 건강한 정신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단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집중 홍보했다.

부안군 보건소,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안군 보건소가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사전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최근 모항·격포해수욕장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이날 주요 관광지 중심의 마을주민과 위생업소, 피서지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단식중독,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캠페인과 함께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 결핵정보

제공, 진드기매개질환 예방수칙, 성병·에이즈 예방 등의 진단을 배부해 관광객들에게 감염병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특히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손 씻기와 가급적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기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조건없는 부안 이웃사랑 '훈훈'

해당화로타리클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쌀 기탁

'행복한 군민, '지방사랑 부안' 건설을 위해 조건없는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회장 김정남·사진)은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쌀10kg 10포대를 기탁 타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어렵게 생활하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5세대에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김정남 회장은 "여성단체로서 해당로클럽이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작지만 다양한 나눔 실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소통의 발판이 되어 원만한 사회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창단된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은 매년 피서철이면 부안군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고사포 해수욕장에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를 물론 부안군 보안면 은총의 집과 부안군 노인요양원을 찾아 미용봉사나 어르신들 치매예방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손발이 되어 주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171건 현장민원해결

전 직원 2마을 2담당 체제로 3754명의 주민 면담

부안군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행복현장 소통주건을 운영해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행복현장 소통주건을 운영해 470여명(현업·휴가 등 제외)의 직원들이 13개 읍면 513개 마을에 대한 일제 현장 출장(2마을 2담당)을 실시해 총 3754명의 주민을 면담하고 171건의 주민 민원을 수렴했다.

군은 특히 이번 현장행정에서 경로당·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냉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타 민생 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민생현장 밀착행정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장행정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등은 최대한 현장에 수 해결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관련부서에 이첩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여 군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민생밀착형 행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 마련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등의 의견이 수렴됐다.

또 농 배수로 정비사업 및 노후화된 농어촌 가로등 신설, 마을 안길 반사경 설치, 마을다리 및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건의사항도 접수됐다.

군은 이번 현장행정에서 주민과 소통·공감·동행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마을지도자 등을 직접 찾아가 민생 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민생현장 밀착행정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장행정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등은 최대한 현장에 수 해결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관련부서에 이첩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여 군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민생밀착형 행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